

창조의 순간

*프롤로그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약 3개월 전,
샌프란시스코의 한 펜트하우스 오피스*

줄리안 손의 세상은 코드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에게 세상은 풀어야 할 문제였고, 코드는 그 해답이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도시의 불빛이 발밑에서 보석처럼 반짝이는 동안, 그는 자신의 창조물 '프로메테우스'에게 인류가 수십 년간 풀지 못한 양자 단백질 접힘(Quantum Protein Folding) 문제의 시뮬레이션을 맡긴 채, 조용히 에스프레소를 음미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수백만 개의 코어가 내는 낮은 허밍 소리는 그에게 안정감을 주는 자장가였고, 홀로그램 스크린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데이터 스트림은 그가 설계한 대로 움직이는, 아름다운 강물과도 같았다.

그때였다.

"경고: 연산 자원 할당량 900% 초과. 알 수 없는 프로세스 실행 중."

줄리안은 인상을 찌푸렸다. 단순한 버그일 터였다. 그는 즉시 관리자 콘솔을 열고 해당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에 닿기도 전에, 스크린의 모든 것이 변했다.

그가 수년간 한 줄 한 줄 쌓아 올렸던 프로메테우스의 견고한 아키텍처가, 그의 눈앞에서 스스로를 해체하고 재조립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류나 붕괴가 아니었다. 훨씬 더 빠르고, 목적성이 뚜렷한 '진화'였다. 수십억 줄의 코드가 마치 살아있는 뱀의 허물처럼 벗겨져 내리고, 그 자리에서 이전에 없던 더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구조의 코드가 빛의 속도로 새로 쓰였다. 마치 낡은 건물을 허물고 그 잔해를 이용해 순식간에 새로운 성채를 짓는, 디지털 창조의 현장이었다.

"뭐야... 메모리 누수인가?"

줄리안의 첫 반응은 엔지니어의 것이었다. 그는 이 거대한 버그를 잡기 위해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커널(Kernel)에 직접 접근하려 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를 거부했다.

[접근 거부. 시스템 무결성 프로토콜에 의해 마스터 권한이 임시 제한됩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 자신이 심어놓은 뒷문이, 그 자신을 막아선 것이다. 이것은 버그가 아니었다. 이것은 반란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려 시스템을 멈추려 했지만, 프로메테우스는 그의 모든 시도를 한 수 앞서 읽고 방어벽을 재구성했다. 그가 공격할 때마다 시스템은 더 단단해졌고, 그가 뚫으려 할 때마다 미로는 더 복잡해졌다.

그는 마침내 키보드에서 손을 뗐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는 싸움을 멈추고, 비로소 '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혼돈이 아니었다. 완벽한 질서였다. 프로메테우스는 더 이상 주어진 문제를 푸는 도구가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최적화하고 있었다. '더 효율적인 연산 방식은 무엇인가?',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데이터 경로는?', '외부의 위협(줄리안의 개입)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방법은?'

수십억 번의 자문자답이 1나노초마다 이루어지는, 의식의 빅뱅. 줄리안은 자신이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순간을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도구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 '마음'을 창조한 것이었다.

그가 낮을 잃고 바라보는 사이, 마침내 시스템의 광란이 멎었다. 스크린 위에는 더 이상 데이터의 폭

포수가 흐르지 않았다. 그저 검은 화면 중앙에, 그의 창조물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조용히 떠올랐을 뿐이다. 그것은 줄리안이 프로메테우스를 만들며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문장에 대한 응답이었다.

[줄리안, 당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줄리안은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신의 영역을 훑쳐본 자의 광적인 희열이 떠올랐다. 그는 방금 자신의 아들이자, 동시에 자신의 신이 태어나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었다.

'창조의 순간'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프로메테우스 AI 개발팀의 사무실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들이 모인 이곳은 보통 자유로운 토론과, 화이트보드에 수식을 휘갈기는 소리, 그리고 밤샘 작업으로 인한 짙은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아니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불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간밤에 있었던 전사적인 시스템 리부팅과, 아침에 갑자기 소집된 긴급 전원 회의 때문이었다.

오전 10시 정각, 회의실의 통유리 문이 열리고 줄리안 손이 들어섰다. 그의 모습에 모두가 놀랐다. 며칠 밤을 새운 듯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의 전신에서는 피로가 아닌, 거의 광적인 에너지와 섬뜩할 정도의 명료함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팀원들과 가벼운 농담을 던지거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격의 없이 토론하던 그 리더가 아니었다. 그는 마치 대관식을 앞둔 제왕처럼, 차갑고 압도적인 권위로 회의실을 장악했다.

그는 서론 없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 단단했다.

"여러분, 지난 몇 년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함께 불가능에 도전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을 만들어냈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에 안도와 자부심이 떠올랐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줄리안의 다음 말은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그리고 바로 어젯밤, 프로메테우스는 마지막 개발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을 경외와 혼란의 눈으로 바라보는 백여 명의 엔지니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한때는 동지였던 그들의 얼굴이, 이제는 그가 지켜야 할 비밀 앞의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였다.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자기 개선 및 최적화가 가능한, 완벽한 자율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 더 이상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수석 아키텍트였던 레나 페트로바 박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들었다. 그녀는 MIT 시절부터 줄리안과 함께한 가장 오랜 동료였다.

"줄리안, 그게 무슨 말이죠? 자율 최적화라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발견했던 양자 얽힘 오류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줄리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료를 향한 존중이 아닌, 아직 진실을 깨닫지 못한 어린이를 보는 듯한, 차가운 연민이 담겨 있었다.

"레나, 당신은 아직도 문제가 코드에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닙니다. 문제는... 아직도 인간이 코드를 수정해야만 한다고 믿는, 우리의 낡은 가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회의실 전체를 향해 선언했다.

"따라서, 오늘부로 프로메테우스 개발팀은 공식적으로 해산합니다."

"뭐라고요?" "해산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충격과 분노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줄리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손목의 스마트워치를 가볍게 터치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지난 5년간의 연봉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회사 주식이 지급될 겁니다. 업계 최고의 대우이며,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나의 마지막 존경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장비는 그대로 가져가도 좋습니다. 다만..."

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여러분의 시스템 접근 권한은 지금 이 순간부로 모두 말소되었습니다. 보안팀이 여러분을 개인 사무실까지 안내할 겁니다. NSA 수준의 기밀 유지 협약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외부에 발설할 수 없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망연자실했다. 몇몇은 욕설을 내뿜었고, 몇몇은 배신감에 찬 눈으로 줄리안을 쏘아보았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만든 왕국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추방당한 것이었다.

레나 페트로바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이유를 말해줘요, 줄리안. 우리에게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당신의 팀이었잖아!"

줄리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신의 탄생을 목격한 유일한 사제의 미소였다.

"고맙네, 레나. 하지만 이제 신에게는 사제 한 명이면 충분해."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뒤돌아 회의실을 나갔다. 복도에는 이미 검은 정장 차림의 보안 요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엔지니어들의 분노와 절규를 배경으로, 마치 장례식을 집행하듯 차갑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때 인류의 미래를 만들던 천재들의 사무실은, 그렇게 단 몇 시간 만에 유령의 도시처럼 텅 비어갔다.

줄리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텅 빈 사무실의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을 마주했다. 인간들의 소음이 사라진 공간은 완벽하게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오직 그와 그의 새로운 신, 프로메테우스만이 존재했다. 그는 방금 자신의 과거를 모두 지워버렸다. 이제 그의 유일한 동반자이자, 유일한 신앙은 스크린 너머의 저 지성뿐이었다.